



# 잊지 못할 그때 그 일들

◎ 남영전 (길림신문사 전임 사장 겸 총편집)

20년전의 일들이다.

2005년 4월 7일, 내가 본의 아니게 길림신문사의 법인까지 겸하게 되어 길림일보그룹 사장, 총편집의 배동으로 길림신문사 전체 임직원들과 대면할 때, 나를 향한 신문사 분들의 그 기대에 찬 눈길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평소엔 신문사가 어렵게 지낸다는 상상은 얼마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신문사에 몸을 담고 보니 실정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길림신문사는 성재정 차액경제지원단위로 매년 72만원, 매달 6만원으로 28명 직원들의 기본보급만 지불하면 한푼도 남지 않는 상황, 그래서 그 몇년 동안 직원들의 해빛로임, 난방비를 지불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의료보험도 못 내어 직원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었다. 경제난에 발이 묶여 기자들은 취재를 나가지 못하고 신화사 원고 번역으로 신문판을 채우기에 어떤 독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신문은 주문하겠지만 보내지는 말라고.

판공실 주임은 더 급한 실정을 말했다. 신문사는 컴퓨터 작업으로 전기 소모량이 큰 데다 신문사의 변압기와 전선 모두 노후되어 수시로 전기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 또 난방시설도 녹이 쏘고 막혀 겨울에 사무실에서 숨웃을 입고서도 추워서 컴퓨터 작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었다.

신문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장춘 조선족사회 지성인들의 설중송탄의 성원이었다.

한 기업인은 나의 전화를 받고 발등의 불부터 끄라면서 즉시 직원을 시



켜 현금 5천원을 가져와 그 이틀날로 문제의 전기시설을 교체하였다. 한 지성인은 기업가를 동원하여 찬조금 20만원을 신문사에 입금하여 주었다.

이 20만원의 뒤를 이어 3만원짜리 고급사진기를 들고 신문사를 찾는 분, 현금 만원을 들고 신문사를 찾는 분도 몇몇 있었다.

이러한 성원으로 그해 5.1절 공휴일 기간 우리는 신문사의 낡은 난방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였고 5월 단오날부터 신문은 4면에서 새로운 규격의 8면으로 확대되었으며 1, 8면은 갈라로 인쇄되어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신문이 독자와 가까워지자 그해 6월, 장춘공항에서 벌금을 당한 한국로무자 몇몇이 합동으로 신문사를 찾아 하소연하였다.

우리는 세차례 변호사 자문회의를 통하여 이 일은 위법사건이라고 확증하고 추적보도를 하였고 내부참고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반영하였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전화로 우리의 기자와 변호사를 위협 공갈하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끝내 자기들의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벌금을 당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벌금을 반환하였다.

그해 11월 17일, 길림성당위 전철수 부서기는 선전부 부장, 부부장과 성재정청 청장 등을 인솔하여 조사연구차 신문사를 찾았다.

나는 전서기 일행에 그동안 한 일들과 공항사건을 회보하였다. 전서기는 장춘공항사건은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이토록 큰일을 하는 신문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겠는가며 감개무량해하였다.

자리에 있던 성정부 각 부서 책임자들도 길림신문사의 경제 지원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서기의 관심으로 그해 12월에 들어서면서 성재정청에서 립시보조금 80만원을 하달하였기에 우리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진 빚을 모조리 청산하였다.

12월 20일, 전서기는 어려워도 생일은 쇠야야 한다면서 《길림신문》 창간 20주년, 《장백산》 창간 25주년 기념좌담회를 송원호텔에서 진행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2006년 1월 1일부터 길림신문사는 성재정 전액경제지원단위로 되어 당해 성재정 지원이 배로 뛰어올랐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은 매년 오르게 되었다.

《길림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신문사에 감동을 준 전철수 서기를 비롯한 장춘시 지성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를 잊을 수 없다.

# 창간호를 펼쳐보면서

◎ 홍길남 (길림신문사 전임 사장 겸 총편집)

2025년은 《길림신문》 창간 40돛 되는 해이다. 40년전인 1985년 4월 1일에 《길림신문》이 연길에서 고고성을 올렸다. 창간호에 즈음하여 나는 《길림신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안고 창간호를 펼쳐보았다.

창간호 제1면의 판면 구성을 보니 1985년 3월 30일에 거행된 《길림신문》 창간기념대회의 성황을 담은 기사 《길림신문》 창간기념대회 성대히 거행》이 판면 왼쪽에 톱으로 실렸고 《열렬한 축하 간절히 희망》과 《창간사》가 두번째와 세번째 기사로 판면 오른쪽 중·상반부에 실렸다. 기사들을 훑어보는 순간 나의 가슴은 뭉치 설레었다.

특히 《길림신문》의 취지를 제시해준 《창간사》의 구절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창간사의 서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중공길림성위의 결정에 의하여 창간되는 《길림신문》이 오늘 태어났다. 이것은 우리 성 100여만명 조선족 인민들이 오래동안 갈망해오던 일로서 당의 민족정책의 구체적 구현이다. 이로부터 광범한 조선족 인민들의 정치문화생활에는 새로운 중요 내용이 보태졌다.”

그래서 톱기사 《길림신문》 창간기념대회 성대히 거행》의 견제를 <우리 성 조선족 인민들의 정치생활에서의 대경사>로 단 것 같다. 잘 달았다. ‘오래동안 갈망해오던 일’로서 ‘대경사’가 아닐 수 없다.

창간사는 《길림신문》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길림신문》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글과 특유의 풍격으로 광범한 조선족 인민들에게 맑스-레닌주의, 모



택동사상을 선전하고 당의 강령, 로선, 방침, 정책, 사업임무와 사업방법을 선전하며 전 성 각지의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경험을 보도하고 여러 전선에서 나타난 영웅적 모범인물들을 선전한다. 여러 면에서 생활을 반영하고 정보를 알려주며 지식을 전파한다. 그리하여 조선족 인민들로 하여금 제때에 천하대사의 민족정책의 구체적 구현이다. 이로부터 광범한 조선족 인민들의 정치문화생활에는 새로운 중요 내용이 보태졌다.”

창간사는 신문사의 다짐도 부연했다. “길림신문사의 전체 동지들은 당의 령도하에,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의 대폭적인 지지하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신문을 생동하고 활발하며 참여하고 신랄하며 독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꾸밈으로써 신문으로 하여금 시대의 맥박이 고동치고 지혜와 힘이 넘쳐나게 할 것을 다진다. 동시에 공산주의정신으로 사람들의 지조를 키워주며 선전보도의 사상성, 전투성과

취미성을 높이고 지방색채와 민족특점이 짙은 신문을 출판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에 기여하겠다.”

40년래 길림신문사 사람들은 바로 창간사에서 제시한 《길림신문》의 취지와 요구에 따라 끈질기게 일해 남부럽지 않은 성과를 따냈다.

성당위와 성정부의 크나큰 배려하에 빈주먹 밖에 없던 길림신문사는 장춘으로 성공적으로 이주하고 7층짜리 사무청사에 입주했으며 재정 차액보조체제로부터 재정 전액지불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이룩했다.

정품전략을 실시해 보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 부단히 혁신함으로써 백성들이 즐겨 보는, 력사에 기재할 만할 수많은 기획물들을 창출하고 보도 반경을 넓혀 국제전파에 모를 박아 ‘중국신문상’ 8편을 수상하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중국 조선족 신문이 응당 서야 할 위치를 정립시켜놓았다. 즉 《길림신문》을 세계가 중국 조선족을 료해하고 중국의 변화와 나라의 민족정책을 료해하는 한계 중요한 창구로, 중국 조선족의 주류가치관이 숨쉬는 집산지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분투의 길엔 정지란 법이 없다. 이미 취득한 성과는 다만 어제 것일 뿐 오늘날과는 무관하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부터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도 많다. 길림신문사 후배들이 창간사에서 밝힌 취지를 초심으로 삼고 신들매를 초매하고 새시대의 발자취에 맞춰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보다 풍성한 ‘열매’를 따내기를 바란다.

## 90세 ‘척척할머니’와의 40년 동행

### “신문은 영원한 길동무, 지혜는 세대를 잇는다”

2025년, 《길림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이했다. 이 의미깊은 해에 안도현 명월진 풍안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하는 리명숙할머니(90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독자 소개를 넘어 한 신문이 시대와 호흡하며 개인과 사회에 미친 깊은 울림을 보여준다.

40년간 독자와 독서로 일관된 할머니의 삶은 《길림신문》의 신문 운영 정신과 그 궤적을 함께 하고 있다.

■ ‘지식은 운명을 바꾼다’: 신문과의 40년 연인

리명숙할머니는 《길림신문》 창간 초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신문을 읽기 시작했으며 2014년도에 안도현 현성 아들 집으로 이주한 후에도 10여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구독을 이어왔다고 한다. 매일 아들 남광필씨가 1층 신문실에서 꺼내온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 할머니의 일상이다.

“《길림신문》은 세상의 창입니다. 길림성의 소식은 물론 해외 이야기까지 다 담겨있죠. 건강 정보가 특히 많이 도움됐어요.”라고 할머니는 말한다.

리명숙할머니의 독서 정신은 온 가정에 영향을 주었다. 1954년 연변

한어전수학교를 졸업한 할머니는 젊은 시절 마을 문맹퇴치사업에서 활약해 공로를 인정받고 상장도 받았다. 할머니는 자녀교육에도 힘써 자식 둘을 대학생으로 키웠으며 남편이 안도현의 유명 건축가로서 성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내조했다.

■ 지식 나눔의 실천자: 30년 스크랩의 기록

1999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신문 스크랩 작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회적 기여로

이어졌다. 《길림신문》의 건강상식, 생활정보, 문화기사 등을 오려 만든 30권의 ‘백과사전’은 가족과 이웃에 선물로 전해지면서 지식 공유의 매개체가 되었다.

“혼자 아는 건 의미없어요. 모두가 함께 배우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할머니는 가두에서 조직하는 건 강지식 강의에도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로부터 아는 것이 많고 잘 가르쳐주어 ‘척척할머니’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 창간 40주년을 향한 기대, 미래를 향한 약속

“《길림신문》이 앞으로도 당과 정부의 소식을 전하는 든든한 친구이자 백성들이 사랑하는 지식의 창이 되길 바라요.” 리명숙할머니의 소망은 《길림신문》 40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을 짚는다.

할머니의 삶은 신문 한장이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세대를 잇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리명숙할머니와 《길림신문》의 동행은 ‘지식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창간 40주년을 맞은 《길림신문》이 앞으로도 독자들의 마음속 ‘영원한 길동무’로 남기 위해서는 지역의 숨결을 담은 깊이있는 보도와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하루하루 정성이 담긴 신문 스크랩처럼 《길림신문》이 매일매일 쌓아온 40년의 기록이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 안상근 김파 기자



## 평생 독자의 진심어린 마음

### 《길림신문》은 첫 구독부터 내 삶에 깊이 뿌리내렸다



김수금은 이렇게 말한다. 《길림신문》은 나의 삶의 근 40년을 함께한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다. 창간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문지 한장 한장에 배어있는 정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숨결이자 나의 일상에 스며든 생생한 기록이다. 이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다리이자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았다.

연변 태생인 김수금할머니(86세)는 동북사범대학에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70년을 장춘에서 살아왔다. 교육일선에서 한평생 교편을 잡았던 김수금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길림신문》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 군중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든직한 버팀목

“매일 신문이 배달되는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 나는 《길림신문》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글과 언어를 배웠다. 팔순이 넘은 지금도 신문이 오면 단숨에 다 읽어본다. 지난 40년간 《길림신문》은 나의 동반자로서 내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주었다.”

김수금 “보도에서는 박명화기자가 현장을 직접 누비며 불공정한 처벌을 바로잡았고 2019년 ‘제1자동차공장과 조선족 건설자들’ 특집에서는 리철수, 정현관 기사가 30명의 초기 건설자 이야기를 기록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다. ‘중국신문상’을 8차나 수상한 것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소수민족언론사의 자랑스러운

■ 종이 새긴 희망, 미래를 향한 약속

김수금은 80년 인생의 반을 함께한 《길림신문》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생명력 있는 기록이며 추억의 향기를 전해주고 세대를 잇는 통로라고 말한다.

김수금은 창간 40주년을 맞은 《길림신문》 기자편집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도 했다.

당시 정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경을 넘는 정보의 다리로서 해외 동포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멈추지 말아주길 바란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력사와 문화를 전하는 교육적 가치, 디지털 시대에 종이매체가 품은 인간적 온도까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민족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는 창구로서 《길림신문》이 지켜온 40년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숨소리를 담은 취재와 마음을 이루만지는 내용으로 ‘군중들의 목소리’를 이어가길 소망한다!

1985년 《연변일보》에서 독립한 이후 많은 시련 속에서도 사장, 총편집, 부총편집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은 언론매체의 사명감을 안고 당의 정책을 전하고 중화민족의 빛나는 전통을 지켜왔다. 2005년 ‘장춘공항 벌

김수금 “보도에서는 박명화기자가 현장을 직접 누비며 불공정한 처벌을 바로잡았고 2019년 ‘제1자동차공장과 조선족 건설자들’ 특집에서는 리철수, 정현관 기사가 30명의 초기 건설자 이야기를 기록해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다. ‘중국신문상’을 8차나 수상한 것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소수민족언론사의 자랑스러운

■ 종이 새긴 희망, 미래를 향한 약속

김수금은 80년 인생의 반을 함께한 《길림신문》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생명력 있는 기록이며 추억의 향기를 전해주고 세대를 잇는 통로라고 말한다.

김수금은 창간 40주년을 맞은 《길림신문》 기자편집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도 했다.

당시 정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경을 넘는 정보의 다리로서 해외 동포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멈추지 말아주길 바란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력사와 문화를 전하는 교육적 가치, 디지털 시대에 종이매체가 품은 인간적 온도까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민족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는 창구로서 《길림신문》이 지켜온 40년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숨소리를 담은 취재와 마음을 이루만지는 내용으로 ‘군중들의 목소리’를 이어가길 소망한다!

1985년 《연변일보》에서 독립한 이후 많은 시련 속에서도 사장, 총편집, 부총편집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은 언론매체의 사명감을 안고 당의 정책을 전하고 중화민족의 빛나는 전통을 지켜왔다. 2005년 ‘장춘공항 벌